



■ 월드컵 소식

“비겼지만 우리는 최선 다했다”

프랑스팀, 스위스전 소감

“비겼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더워서 혼났다.”

2006 독일월드컵 G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스위스와 무승부를 기록한 프랑스 선수들이 전한 경기 소감이다.

14일 AP통신에 따르면 ‘티티’ 티에리 앙리(29·아스날)는 경기 뒤 취재진에게 “공이 스위스 수비수 파트릭 뮐러의 손에 맞았는데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은 것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다”고 말했다.

앙리는 이어 “프랑스가 페널티 킥을 얻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기에 선발 출장한 중앙수비수 윌리앙 갈라스(29·첼시)는 “찌는 듯한 더위속에서 프랑스만의 ‘슈퍼축구’를 구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털어놓았다.

갈라스는 이어 “비록 골로 연결하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득점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낸 것은 그나마 얻은 소득”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수비형 미드필더 파트리크 비에

라(30·유벤투스)는 “제대로 갖춰진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잘 가동됐다”면서 “미드필드에서 상대 진영의 공간을 90분내 장악한 것이 이를 입증해 준다”고 자랑했다.

골키퍼 파비앙 바르테즈(35·올랭피크 리요네)는 “더워서 혼이 났다”면서 “아직 두 경기가 남아있으니 빨리 체력을 회복하고 준비도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는 날씨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왼쪽 수비수 에릭 아비달(27·올랭피크 리요네)도 “스위스가 매우 빠른 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내 플레이에 만족하지만 월드컵에서는 어떤 상대방이든 우리를 이기려고 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고 밝혔다.

한편 스위스 스트라이커 알렉산더 프라이어(27·스타드 르네)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프랑스 수비진은 세계 최고”라고 호평했다.

프라이어는 이어 “그러나 이러한 점이 경기에 큰 영향은 끼치지 못했으며 결국 스위스와 프랑스가 16강에 진출할 것”이라며 큰 자신감을 나타냈다.

‘팀 가이스트’ 야구공처럼 움직인다

英 스포츠과학자 평가

“축구공이 야구공처럼 킥되며 움직인다”

영국 배스 대학의 스포츠과학자 켈 브레이의 평가다. 독일 월드컵 대회 초반부터 화제가 된 공인구 팀 가이스트가 이제는 야구공으로 진화했다.

프랑스 대표팀 골키퍼 파비앙 바르테즈는 14일(이하 한국시간) “앞으로 30~35m짜리 중거리 슈트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며 중거리 슈트 풍년을 예고했다.

실제 13일 벌어진 토고와 G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한국은 이천수의 프리킥(20m), 안정환의 중거리슈트(27m)를 앞세워 감격적인 원정 경기 첫 승을 신고했다.

역시 이날 크로아티아를 1-0으로 누르고 6번째 우승을 향해 힘찬 시동을 건 브라질 카카의 원발 결승골도 중거리 슈트였다.

전날 일본을 침몰시킨 호주 케이힐의 역전골과 가나전에서 나온 안드레아 피를로의 선제골도 모두 적당한 거리에서 터뜨린 미사일포였다.

지난 9일 코스타리카와 개막전에서 독일의 토스텐 프링스는 40m짜리 중거리 슈트로 대포알 슈트의 포문을 열었다.



팀 가이스트가 가볍고 빠른 덕분에 킥력이 좋은 선수가 잘 경우 휘어지는 각도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게 이미 경기에서 입증됐다. 특히 아주 작은 스핀만으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이번 공인구의 특징이다.

‘검은 대륙 돌풍’ 더이상 없나?

아프리카 4개팀 1차전 때

더 이상 검은 대륙의 돌풍은 일지 않겠다.

1990년대 이후 세계 축구계에 북병으로 떠올랐던 아프리카가 2006독일월드컵에서 전패의 수모를 당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5개국이 출전한 아프리카는 개막 이틀째인 11일(이하 한국시간) 코트디부아르가 브라질과 함께 남미대륙의 맹주로 군림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에 1-2로 패한 뒤 다음 날 알골라가 포르투갈에 0-1로 졌다.

13일 새벽에는 가나마저 이탈리아에 0-2로 완패했고 말썽 많았던 토고도 같은 날 밤 한국에 1-2로 역전패, 아프리카팀들이 조별리그 1차전에서 4전 전패의 수모를 당했다.

아프리카는 '90 이탈리아월드컵 개막전에서 카메룬이 전 대회 우승국 아르헨티나를 꺾은 뒤 8강에 올랐고, 2002년 한일월드컵 개막전에서도 세네갈이 역시 2회연속 우승을 꿈꾸던 프랑스를 제압하고 준준결승까지 올라 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부진을 거듭해 검은 대륙은 온통

초상집이다.

아프리카의 부진은 경험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와 알골라, 가나, 토고는 모두 월드컵에 첫 출전한 팀으로 자국 축구협회의 지원마저 열악해 상대국 파악 등 본선 준비에 미비점이 많았다.

선수들이 유럽프로축구에서 활약할 만큼 개인기는 뛰어나지만 지나친 개성으로 인해 조직력이 약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제 아프리카에서 남은 팀은 15일 새벽 사우디 아라비아와 맞붙는 튀니지 뿐이다.

튀니지는 앞선 4팀과 달리 '78 아르헨티나, '98 프랑스대회와 2002년 한일월드컵에 이어 본선에 4번째 출전해 경험이 풍부한 데다 1차전 상대도 만만한 사우디아라비아여서 첫 승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아프리카의 부진이 거듭되자 다시 한번 ‘벨레의 저주’가 회자되고 있다.

매번 월드컵마다 빛나는 예인으로 유명한 벨레는 지난 1977년 일제강치 “2000년대에는 아프리카대륙에서 월드컵 우승팀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경주(왼쪽)와 타이거 우즈가 14일 미국 매머로백 윈드풋골프장에서 열린 US오픈 연습라운드 17번홀과 4번홀에서 각각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린에서도 오늘 ‘별들의 전쟁’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총상금 625만달러를 놓고 벌이는 ‘스타워즈’ US오픈골프대회가 15일 밤(이하 한국시간) 개막한다.

전 세계가 독일월드컵 열풍에 휩싸여 있지만 전통과 권위에서 브리티시오픈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특급대회 US오픈에 놀리는 관심도 이에 못지 않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매머로백의 윈드풋골프장 서코스(파70·7천264야드)에서 열린 US오픈은 1895년 창설돼 제1,2차 세계대전으로 모두 6차례를 결렸을 뿐 올해로 106회째를 맞는 유구한 역사

PGA US오픈 개막...최정상급 선수 총출동

를 자랑한다.

우승상금이 112만5천달러로 엄청난 뿐 아니라 출전선수 모두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점에서 우승자가 갖는 ‘남버왕’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예이다.

관전 포인트 가운데 으뜸은 지난 4월 마스터스대회 이후 필드에서 모습을 감췄다가 2개월만에 복귀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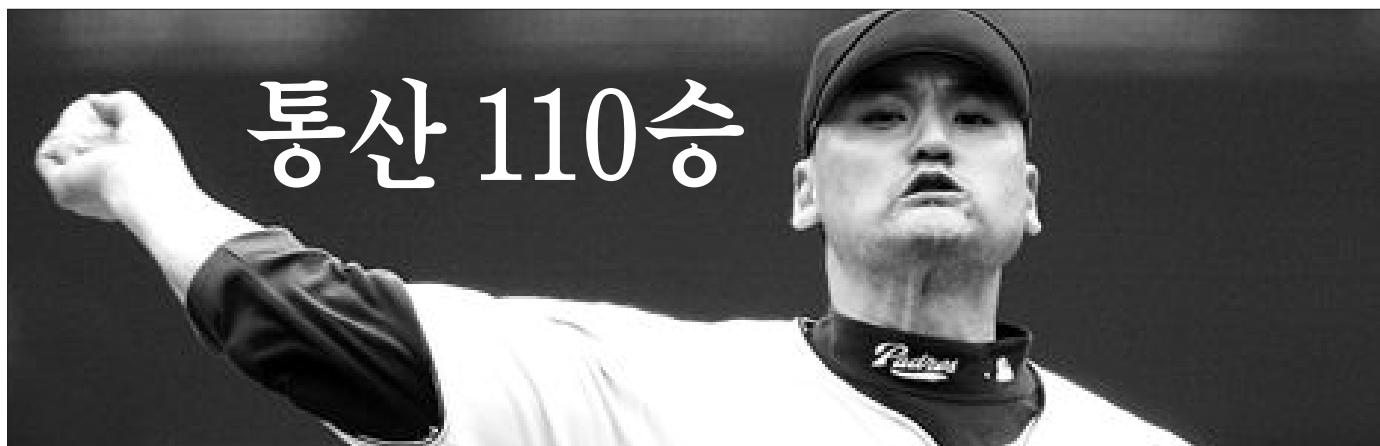
국)의 우승 여부다.

올해 상반기에 2승을 올려 ‘제2의 전성기’를 예고했던 우즈는 ‘영원한 스승’인 아버지 알 우즈의 병세가 깊어지면서 필드를 떠났고 끝내 지난달 부친상을 당해 아직도 충격과 슬픔에 잠겨있다.

또 우즈의 독주에 숨죽이고 있다가 작년부터 확실한 대항마로 떠오른 필 미켈슨(미국)

과 에니 엘스(남아공), 비제이 싱(피지), 그리고 ‘파메이킹의 1인자’로 US오픈 때면 우승 후보에서 빠지지 않는 레티프 구센(남아공) 등 ‘빅5’가 벌이는 대결도 흥미진진하다. 이에 짐 퓨릭, 데이비드 톰스(이상 미국), 마이클 캠펠(뉴질랜드), 파드릭 헤링턴(아일랜드) 등 중견들과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체드 캠펠(미국), 애덤 스콧(호주) 등 ‘젊은 피’들의 반란도 기대된다.

최경주(36·나이키골프)도 생애 첫 US오픈 ‘톱 10’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통산 110승

‘코리안특급’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전정팀 LA 다저스를 제물로 개인 통산 110승 및 시즌 4승 달성에 성공했다.

그러나 다저스의 서재응(27)은 5회 중간 계투로 등판, 박찬호와 잠깐 동안 한국인 투수 맞대결을 벌였으나 3점 홈런을 맞고 쓸쓸히 퇴장했다.

박찬호는 14일(한국시간)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을 각각 3개씩 내줬지만 삼진 5개를 솟아내며 1실점으로 호투한 뒤 8-1로 크게 앞선 7회 존 에드킨스로 교체됐다.

박찬호, 다저스 제물...시즌 4승 맞대결 서재응 홈런맞고 강판

경기가 9-1로 끝나면서 박찬호는 지난해 6월5일 캔자시티전에서 개인 통산 100승을 올린 뒤 1년 9일 만에 110승에 도달했다.

아울러 다저스전 통산 4번째 등판 만에 첫 승을 신고하면서 내셔널리그 전구단 상대 승리투수가 됐다.

박찬호는 아메리칸리그의 토론토 블루 제이스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에서만 승리하면 30개 구단 승리투수가 된다.

통산 성적은 110승83패(평균자책점은 4.32), 시즌 성적은 4승3패다.

그는 이날 98개를 던졌고 그 중 스트라이크는 60개였다. 평균자책점은 4.36에서 4.15로 좋아졌다. 또 2타수 1안타로 고타율(0.375)을 유지했다.

한편 서재응은 1-5로 뒤진 5회 마운드에 올라와 2루타와 볼넷을 내줘 1사 1,3루에 돌린 뒤 마이크 캐머런에게 좌월 3점 홈런을 맞고 무너졌다. 1이닝 동안 2피안타 3실점으로 평균자책점이 5.28에서 5.64로 뛰었다.

서재응은 6회에도 등판했다가 오른 어깨 통증을 호소해 조 바이렐로 바뀌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세리 랭킹 19위 110위서 수직상승

메이저 왕관으로 부활을 알린 박세리(29·CJ)가 세계랭킹에서도 바둑판에서 상위권으로 수직 상승했다.

14일 발표된 톨렉스여자골프 주간 세계랭킹에 따르면 맥도널드 LPGA챔피언십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한 지난 주 110위에 그쳤던 박세리의 랭킹이 19위로 치솟았다.

1주일만에 무려 91계단이나 상승한 것으로 메이저대회 우승컵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

박세리는 또 프로 데뷔 이후 한번도 거르지 않았던 작년 초창장을 받지 못했던 삼성월드챔피언십 출전권을 확보했고 에비앙마스터스 내셔널LPGA챔피언십에서 공동 5위를 차지한 덕에 다시 랭킹2위로 복귀했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 육상·수영 선전 기대...9위 목표 전남 태권도 등 전력 향상...8위 도전

■ 소년체전 광주·전남 전력 분석

서 전력향상이 기대되고, 전통강세 종목인 체조와 투기종목에서 금메달이 기대된다.

특히 육상에서 서일초동의 신준수가 100m·200m 금메달이 유력하고, 수영에서 초등 여자 김지현(화정남초동)이 2관왕, 중학부 남자 황준호(전남중)가 금메달 2개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태권도에서 금 2, 복싱 1개, 레슬링 2개, 유도에서 1개, 씨름에서 1개 등 투

기 종목에서 금메달 7개를 획득해 한자릿수 진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문흥중 배구, 중앙중 농구, 금호중이 정구 등 단체종목에서 금메달을 예상하고 있다.

▲전남=전남은 29종목에 1천126명(선수 807명, 임원 319명)이 참가한다. 종합 8위에 올라 지난해 보다 2계단 상승을 목표로 세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은 목표영화중 배구와 화순제일중, 영산포여중 펜싱 등 단체 2개, 개인 3체급이 부진상에 올랐고, 수영과 인라인 롤러에서 기록이 향상돼 금메달 23개를 기대하고 있다.

수영에서 문지영(오성초동)이 여자초등 자유형 200m 금메달이 유력하며, 육상에서는 박수호(여수남초)가 남자초등 멀리뛰기, 윤수용(나주중)이 남중 5천m경보, 박정연(도원초)이 여자초등 높이뛰기, 박승경(체육중)이 여중 3천m에서 금메달이 유력하다. 사이클에서는 흥현지(다시중)가 200m후라이, 500m 독주 2관왕이 기대되고, 역도의 장슬기(체육중)는 63kg 급 인상·용상·합계 3관왕이 유력하다.

단체종목에서는 광양제철남초동이 축구, 정구 남초선발과 남중 선발이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고, 남중 배드민턴의 화순중도 금메달을 따낼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